



“소박한 한옥, 이곳은 공연장입니다”

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
호남동에 ‘광주 디엠홀’ 개관
한옥 두 채...티타임 공간도
한옥이 주는 울림 그대로 전달
한달에 한번 클래식 공연 계획

광주시 동구에 있는 호남동 성당 뒤 좁을 골목 길을 따라가다보면 ‘광주 디엠홀’이라고 적혀진 조그마한 간판이 보인다. 간판 옆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푸른 잔디가 돌아있는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그 왼쪽 고즈넉한 한옥은 소박하고 정겨운 느낌을 준다.
이곳은 지난 2019년 12월 문을 연 공연장 디엠홀(광주시 동구 호남동 39-17)이다. (사)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67) 단장이 한옥 두 채를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으로 최 단장과 그의 아내인 박미애 광주대 교수의 이니셔티브 디엠(DM)홀이라고 이름지었다.
오랫동안 충장로에서 광주아트홀을 운영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온 최 단장은 늘어난 공연 소품들을 관리할 공간이 필요해져 창고로 활용할 만한 공간을 찾던 중 이곳을 발견했다. 원래는 한 채만 구입해 공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나란히 위치한 한옥 한 채를 더 구입해 공연 전 후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코로나 19가 닥치기 전 문을 연 터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연이 활발히 열리지 않았지만 디엠홀 개관기념공연 바리톤 김대수 독창회를 시작으로 한소리회 정기공연, 앙상블은 콘서트, 브니엘 작은 음악회 등의 무대가 이어져왔다.
공연장이 있는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다란 복도가 펼쳐진다. 복도 왼쪽엔 손 소독제, 체온계 등이 비치된 티타임스가 있고 오른쪽엔 관객석과 무대가 마련되었다. 무대 양 옆은 출연자 대기실이다. 공연장은 30평 규모로 적게는 50석, 많게는 100석까지 채울 수 있다. 공연장 한쪽 벽장을 열면 마당과 트여 야외공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클래식 선율을 만끽할 수 있다.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주는 울림이 좋아요. 악기의 공명이 잘 돼 울림을 그대로 관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게 장점이지요. 일반 공연장에 비해 작고 소박한 곳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정식 공연장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갖출 건 다 갖췄죠.”



또 다른 한옥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과 소파 등이 놓여있다. 또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장식장, 최 단장이 어렸을 적 부터 사용하던 피아노, 그림 등 다양한 소품 등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최 단장은 앞으로 한달에 한번 연주자를 초청해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또 미니 오페라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유럽에서는 이곳처럼 조그마한 공연장이 인기다. 이런 문화가 광주에도 정착하길 바란다”며 “꾸준히 힘 닿는 데까지 이곳에서 공연을 여는 것, 그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서현(전자공고 3) 작 'face'

미래 지구의 모습은 청소년들 ‘돌아온 세계’ 전 8월 1일까지 미노갤러리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걸음.’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등의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듣게 되는 요즘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미노갤러리(광주시 동구 동계로 15번길 20-4)가 기획한 ‘돌아온 세계’ 전이 오는 8월1일까지 미노갤러리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화폭에 담아낸 풍경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는 작은 발언이자, 애타의 마음이다.
푸른 바다에 속에서 유영하는 고래는 온갖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고, 녹아내린 빙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의 모습은 아슬아슬하다. 쓰레기로 뒤덮인 먼 미래 지구의 모습은 암울하다.
전시에는 최하늘(조대여고 3)의 ‘도시 속 늑대’, 추연진(광주여고 2)의 ‘결국 남게 되는 것’, 이주미(송원여고 2)의 ‘탈출하지 못하는 방’ 등 모두 22점의 작품이 나왔다.
2018년 광주시 동구 계림동 나무전거리에 문을 연 미노갤러리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조민호씨가 오픈한 곳으로 김효삼·문정호·조문현·명현철 작가를 초대한 ‘나무전거리·동행전’, ‘신선운전’ 등을 개최했다. 문의 062-222-702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1일 최덕식 단장 독창회...뇌경색 수술 후 17년만의 무대 “다시 무대 설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꾸준히 연습”

17년만에 무대에 서는 기분은 어떨까. 지난 2004년 뇌경색으로 수술한 후 노래를 하지 못했던 (사)빛소리 오페라단 최덕식(사진) 단장이 독창회를 연다. 오는 31일 오전 11시30분 디엠홀.
최 단장은 “언젠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했다”며 “이렇게 독창회를 열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에서 입상하고 독창회 30 여회, 듀오리사이틀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최 단장. 그는 “수술 후 소리가 안나왔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무대에 서는 대신 광주아트홀을 개관하고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며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3년 전에도 심장 동맥이 막혀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몸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성악가는 몸이 악기’예요. 현재 90% 정도 실력을 되찾았는데 회복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소리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독창회를 위해 1000만 원짜리 피아노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탈리아 가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나를 울게 버려두오’를 비롯해 ‘마음 속에 느끼네’, ‘나는 괴로움에 찼네’, ‘그대 잔인해도’,

‘나를 울게 버려두오’ 등 11곡을 선보인다. 팸플릿은 40 여년 전 미국에서 공연할 때처럼 제작해 종이 한 장에 연주자와 프로그램을 모두 담았다.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장희경이 함께한다.
그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영미, 한국 가곡 등을 시리즈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성가곡, 오페라 등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디엠홀에서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해요. 70, 80살이 되도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관객이 한명이라도 좋습니다. 두명이면 더 좋구요.”(웃음)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